

사바카이도의 기원

사바카이도(고등어길)는 일본해와 옛 수도 교토를 잇는 여러 갈래의 교역로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이 명칭은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이 길 자체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견과 고대 수송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고분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

와카사 지역을 지나는 이 길을 따라서는 열쇠 구멍 모양의 매장묘(고분)가 다수 점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미나카 지역은 여기에서 발견된 5~6 세기의 고분으로 유명합니다. 발굴된 부장품 중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온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부터 일본해 연안의 항구에서 해외와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수도로 통하는 교역로가 확립되어 있어 내륙으로의 수송이 용이했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몇몇 고분은 와카사에서 천황이나 조정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씨족인 가시와데노오미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정에 식량을 바친 와카사국(와카사노쿠니)

와카사국은 옛날 조정에 세금의 일부를 식재료로 납부하던 미케쓰쿠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의 나라현에 있던 후지와라쿄(694년~710년의 수도)와 헤이조쿄(710년~740년, 745~784년의 수도) 발굴조사에서는 와카사에서 온 목제 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패에는 출하처 지역, 세금 납부 대상, 짐에 포함된 식품 종류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패에 기재된 물품 중에는 소금, 홍합, 도미 등과 같은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바카이도라는 교역로가 고등어로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 다른 귀중한 식료품이 이 길을 통해 와카사에서 나라 그리고 이후에는 교토로 운반되었습니다.